

■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 8탄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는 예술 가능성 보여주는 것”



유교 하세가와 ‘아시아 근현대미술과 21세기의 인간성’

“광주비엔날레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21세기 아시아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참여형 예술의 전형이기 때문이죠.”

지난 10일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열린 광주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분관 강독실.

이 강좌의 여덟 번째 강사인 유교 하세가와 동경 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시아 미술의 특징과 그 가능성을 다양한 작품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우선 그는 21세기 문화에 필요한 요소로 ‘가벼움’ ‘속도’ ‘시각성’ ‘시선의 다양성’을 든 이탈리아의 문화가 이탈리아 칼비로를 언급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아시아의 전통과 사고방식 그리고 현재의 예술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최우열, 일본의 오자와 초요시 등 아시아 작가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잘 표현하는 작가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종합해보면 첫째 주변과의 융합, 부드러운

으로 대표되는 관계성, 둘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혼성 셋째, 일상 속 예술의 지향이라는 참여성을 아시아 현대미술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형 예술은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장르 간에 서로 교차하여 여러 형식으로 분화되면서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예술의 가능성을 이끌어갈 현대미술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술관은 작품의 보관·유지는 물론 현대미술의 흐름을 설명하고 그 가치가 일상 속에 물어내게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나자와의 시장과 건축가 사나 등 젊은 스태프들이 시도한 ‘21세기 미술관’은 개방형 미술관으로 그 중심에 미술관 기능을 두고, 주변에 아트커뮤니케이션 기능(도서관, 카페, 영화관, 임대형 시킨갤러리 등)을 배치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영감을 주위에 공급하는 ‘생산

하는 미술관의 전형’이라고 소개했다.

또 더 진보된 프로젝트인 이누자마의 ‘주택 프로젝트’는 예술과 생활의 거리를 가까이하여 일체화하려는 생각이 건축디자인이나 전시품에 잘 반영된 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의 후에는 2010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영상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다.

“현대미술과 인문학” 아홉 번째 강좌는 오는 10월15일 심해련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열린다. 심 교수는 현대사회의 이미지와 매체, 디지털 매체 예술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62-613-538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부산비엔날레 개막

현대미술에 담은 ‘문명의 이면’

‘진화속의 삶’ 주제 23개국 252명 참여

지난 11일 개막한 2010 부산비엔날레(11월20일까지)는 국내외 작가들의 이색 작품과 해운대 등 풍부한 지역 관광자원을 앞세운 흥겨운 미술 축제에 펼쳐졌다.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이란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인간의 진화 속에 담긴 사회변화와 현대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개막에 앞서 지난 10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부산비엔날레는 ‘진화속의 삶’을 주제로 23개국 작가 252명의 작품 338점으로 구성됐다.

아주마야 타카시 감독은 전시 주제에 대해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줘지

만 오히려 사람을 소외시키는 결과도 함께 낳았다”고 설명했다.

메인 전시장인 부산시립미술관과 공인리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등지의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들은 대부분 주제를 잘 소화했다.

베트남 출신 딘 큐 레는 평온했던 농촌 지역에 전투용 헬리콥터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 작품 ‘농부와 헬리콥터’를 선보였다. 살기 위해 헬리콥터를 보며 웃음을 보이고, 인사를 하는 농민들과 조국을 위해 헬리콥터를 만들게 되는 한 남자의 삶을 담고 있다.

또 건축 폐자재가 마치 물결처럼 요동치

는 거대한 설치 작품인 중국 작가 그룹 메이 드인의 ‘고요’ 등도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의 아르놀트 라이너, 이스라엘 이샤이 가르마스, 최근 해외 화단에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 작가 진 메이 등 인류의 진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젊은 작가 190명이 대표 작품을 전시하는 ‘아시아는 지금’전, 부산지역 화랑 26개가 참여하는 ‘갤러리 페스티벌’도 곁들여졌다.

이번 주제에 집착하다 보니 일부 작품이 너무 설명적이고, 비엔날레치고는 규모가 작아 다소 불 것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부산=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공간 중 하나인 공인리 해변에 설치된 김정명의 ‘머리’. 이번 전시에는 23개국 252명의 작가가 참여해 338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연합뉴스

이형석 바이올린 독주회

내일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지난 1년간 학교를 잠시 떠나 재충전 시간을 가졌던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전남대 예술대 교수)씨가 14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무대에 선다.

이씨는 지난해 연구년을 맞아 1년간 파리에 머물며 파리음악원 비앙코 포스탕스교수와 함께 음악캠프를 여는 등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연의 연주레퍼토리는 바흐의 ‘파르티타 2’ 중 ‘사라방드’를 비롯해 ‘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24’, 프랑크 작곡가 프랑크의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소나타 곡 ‘피아노와 바이올린

위한 소나타 A장조’다. 1990년 금호 현악 4중주단을 거쳐 지난 1996년 모나무르 실내악단을 창단한 이씨는 지휘자 조지 옥토스, 바이올리니스트 앙드레 플레브 등을 초청, 지역에 수준높은 연주를 선보여왔다.

피아노 반주는 독일 필름 음악과 라히프찌히 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조현영(순천대 등 출강)씨가 맡았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석전제 봉행

14일 광주향교 대성전

광주향교(전교 박태근·사직은 공기(孔紀) 2561년 가을 석전제(釋奠祭)를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구동광주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한다.

석전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올리는 전통 제례의식으로 매년 봄, 가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초순 10갑자의丁자가 들어가는 날)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거행하고 있다.

광주향교 대성전에는 공자·증자·맹자 등 5성(五聖)과 송조(宋朝) 2현, 최치원·정몽주·조광조 등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문의 062-672-70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일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에서 유교 하세가와는 아시아 예술의 발전을 위해선 미술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우전해수욕장 매일 운행

슬로시티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엘도라도리조트** 남해관광 **광주 062)225-5544** **서울 1566-2233**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증도(엘도라도리조트)

서틀버스 운행 (최신형 관광버스)

● 당일서틀 :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증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상 품	요 금
서틀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16,000원(주중) 15평 1인요금 ●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44,000원(주중) 26평 1인요금 ●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MEGABOX

최고급관

M관	해결사(15세)
2관	아저씨(18세)
3관	에프터라이프(15세)
4관	킬러스(15세)
5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18세)
6관	피라냐3D(18세)
7관	악마를보았다(18세)
8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세)
9관	아저씨(18세)
10관	킬러스(15세)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료에 포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해결사(15세)
2관	에브리바디울라잇(15세)
3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세)
4관	인생선(12세)/에프터라이프(18세)
5관	피라냐3D(18세)
6관	악마를보았다(18세)
7관	킬러스(15세)
8관	아저씨(18세)
9관	해결사(15세)

www.cinus.co.kr
색깔있는 영화선택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킬러스(15세)
2관	에프터라이프(15세)/에브리바디울라잇(18세)
3관	인생선(12세)/아저씨(18세)
4관	아저씨(18세)
5관	라스트에어벤더(전세)/피라냐(18세)
6관	해결사(15세)
7관	마루밀아리에티(전세)/악마를보았다(18세)
8관	물란(15세)/프레데터스(15세)
9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세)
10관	해결사(15세)

www.cinuso.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